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2022-003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I.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04
2. 주요 기능	04
3. 피해지원 절차	05

II. 피해자 지원 실적

1. 전체 현황	가. 운영 실적	09
	나. 지원유형별 현황	10
2. 상담 현황	가. 최초 상담 경로	11
	나. 피해자 현황	12
	다. 피해 유형	13
	라. 피해자-가해자 관계	16
3.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현황	가. 피해 인지 경로	19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20
	다.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	22
	라. 피해촬영물 유형	22
	마. 피해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23

부록

1. 피해자 지원 사례	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지원	26
	나. 몸캠피싱 피해자 지원	27
	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공조	28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29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30	
4. 통계자료	32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I.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능

	<p>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피해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연계 · 피해촬영물 유포 게시물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p>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업자 전용 삭제지원 창구 개설 및 운영 · 수사기관 사이트 폐쇄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의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포 게시물 차단을 위한 심의요청
	<p>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역량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매뉴얼·보고서 제작 및 배포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p>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술 기반 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촬영물 유포현황 추적을 위한 삭제지원시스템 개발·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

3. 피해지원 절차

상담 업무 흐름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선제적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수사기관 삭제지원 요청 피해촬영물

현황분석 및 URL 수집



- 사이트별 모니터링
- 피해촬영물, URL 등 확보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 가해자 소지 피해촬영물 등 삭제지원 요청

유형 분류 및 채증

- 지원대상 DB 분류
- URL 별 채증

선제적 삭제지원

- 플랫폼별 삭제요청 및 재유포 모니터링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환류

- 범죄양상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II.

피해자 지원 실적

일러두기

1.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수록된 지원실적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상담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신고(고소) 또는 유죄판결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 ‘피해내용’ 등의 용어는 법적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의 자료 인용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지원한 피해자 명수
- 2020년도에 최초로 지원이 시작된 피해자 중 2021년에도 지원이 지속된 경우 2021년 피해자 인원내 포함하였습니다.

지원 건수

- 해당연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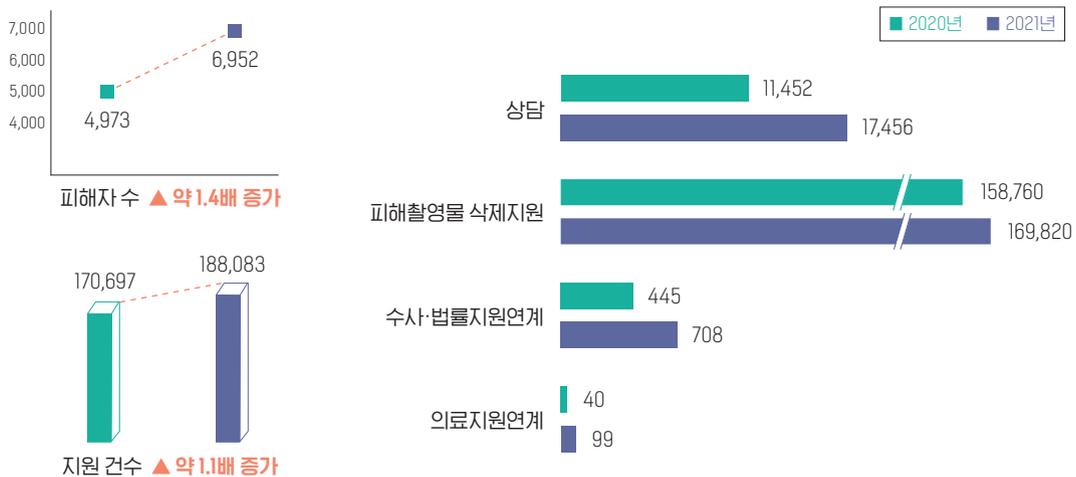
- 항목별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아래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 통계 내용은 2021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년 대비 양상이 크게 변화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1. 전체 현황

가. 운영 실적

(단위: 명, 건)

기간	피해자 수 (명)	지원 건수 (건)				
		합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20년	4,973	170,697 (100.0%)	11,452 (6.7%)	158,760 (93.0%)	445 (0.3%)	40 (0.02%)
2021년	6,952	188,083 (100.0%)	17,456 (9.3%)	169,820 (90.3%)	708 (0.4%)	99 (0.1%)



2021년 지원 건수는 총 188,083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이 169,82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담 17,456건, 수사·법률지원연계 708건, 의료 지원연계 9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24시간 상담을 시범운영한 데 이어 2021년 24시간 상담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안정화하였으며,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의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해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한 결과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신규로 지정·운영하여 지역 단위의 연계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건수 역시 전년 대비 각각 약 1.6배,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나. 지원유형별 현황

(단위: 명)

기간	합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상담 및 지원연계*
		소계	삭제지원 인입	삭제지원 전환		
2020년	4,973 (100.0%)	841 (16.9%)	618 (12.4%)	223 (4.5%)	967 (19.4%)	3,165 (63.6%)
2021년	6,952 (100.0%)	1,028 (14.8%)	683 (9.8%)	345 (5.0%)	1,761 (25.3%)	4,163 (59.9%)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없이 상담 또는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를 단독으로 받은 경우

- | 삭제지원 인입 : 초기 인입부터 유포가 확인된 피해촬영물 대상 삭제지원 및 재유포 모니터링
- | 삭제지원 전환 :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가 확인된 피해촬영물 대상 삭제지원 및 재유포 모니터링
-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촬영물 대상 유포 여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 2021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028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배,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76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피해자 1,028명 중 345명(33.6%)은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 사실을 조기에 탐지, 삭제지원으로 전환되어 신속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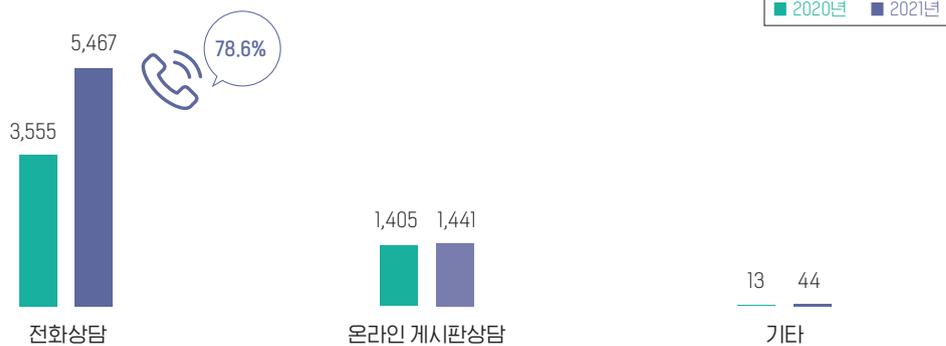
2. 상담 현황

가. 최초 상담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전화상담	온라인 게시판상담	기타*
2020년	4,973 (100.0%)	3,555 (71.5%)	1,405 (28.3%)	13 (0.3%)
2021년	6,952 (100.0%)	5,467 (78.6%)	1,441 (20.7%)	44 (0.6%)

* 전화, 게시판 상담을 제외한 방문, 문자, 이메일 등으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2021년 6,952명의 피해자 중 전화 상담을 통해 최초 인입된 경우가 5,467명(78.6%)으로 상담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통해 1,441명(20.7%)의 내담자가 인입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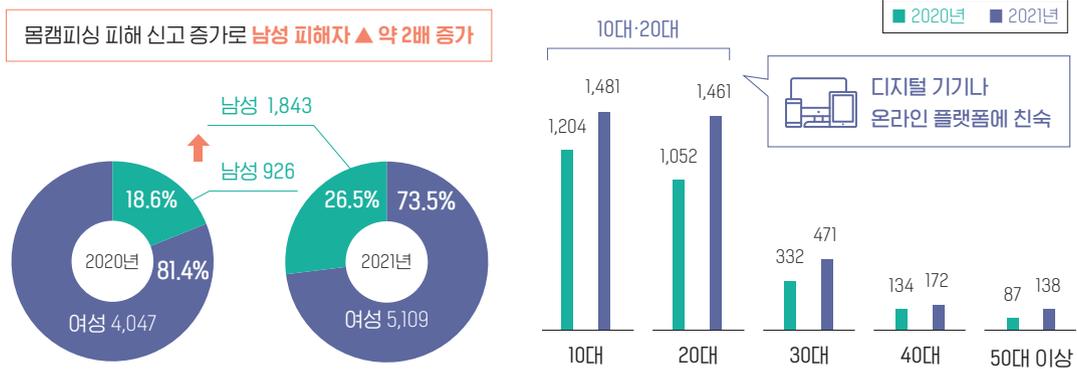
-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피해상황에 따른 지원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전화 상담 02-735-8994 [24시간]
 - 게시판 상담 d4u.stop.or.kr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URL 주소
 - 피해촬영물 영상 사진 [※캡처본 불가]
 -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징하는 게시물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나.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20년	여성	4,047 [81.4%]	1,007 [20.2%]	863 [17.4%]	267 [5.4%]	77 [1.5%]	36 [0.7%]	1,797 [36.1%]
	남성	926 [18.6%]	197 [4.0%]	189 [3.8%]	65 [1.3%]	57 [1.1%]	51 [1.0%]	367 [7.4%]
	계	4,973 [100.0%]	1,204 [24.2%]	1,052 [21.2%]	332 [6.7%]	134 [2.7%]	87 [1.7%]	2,164 [43.5%]
2021년	여성	5,109 [73.5%]	1,194 [17.2%]	1,090 [15.7%]	367 [5.3%]	91 [1.3%]	42 [0.6%]	2,325 [33.4%]
	남성	1,843 [26.5%]	287 [4.1%]	371 [5.3%]	104 [1.5%]	81 [1.2%]	96 [1.4%]	904 [13.0%]
	계	6,952 [100.0%]	1,481 [21.3%]	1,461 [21.0%]	471 [6.8%]	172 [2.5%]	138 [2.0%]	3,229 [46.4%]

1 피해신고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021년 피해자는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이었으며,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몸캠피싱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피해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연령 미상이 3,229명(46.4%)이었으며, 10대, 20대가 전체의 42.3%인 2,942명인 반면, 40대, 50대 이상이 전체의 4.5%인 3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또한 2020년과 마찬가지로 10대 피해자가 1,481명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며 연령 미상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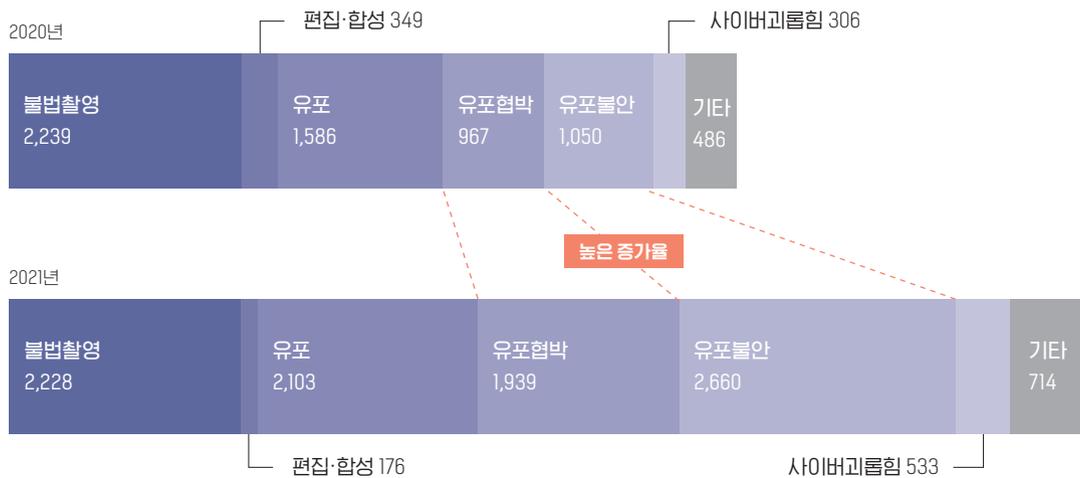
다. 피해 유형

(단위: 건)

기간	합계	불법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0년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년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 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 집계

| 피해자 A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중복하여 입은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 2021년 피해자 6,952명은 총 10,353건의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5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 2021년 피해 유형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유포협박 1,939건(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중 유포불안, 유포협박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촬영물을 필미로 협박하여 추가 촬영물이나 금전을 취득하는 가해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유형과 예시는 무엇인가요?

피해 유형	예시
불법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탈의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편집·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유포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사이버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치 않는 성희롱이나 성적 촬영물을 전송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연령대별 피해 유형]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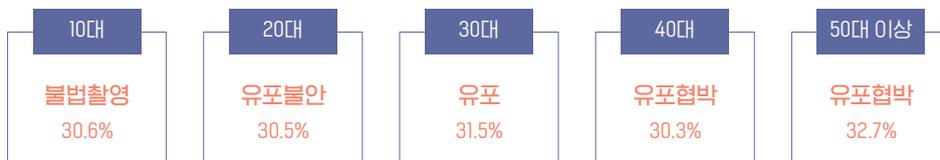
(단위: 건)

연령	피해자 (명)	합계	불법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10대	1,481	2,478 (100.0%)	758 (30.6%)	80 (3.2%)	261 (10.5%)	443 (17.9%)	681 (27.5%)	199 (8.0%)	56 (2.3%)
20대	471	2,269 (100.0%)	361 (15.9%)	43 (1.9%)	577 (25.4%)	445 (19.6%)	693 (30.5%)	86 (3.8%)	64 (2.8%)
30대	138	726 (100.0%)	101 (13.9%)	5 (0.7%)	229 (31.5%)	138 (19.0%)	202 (27.8%)	29 (4.0%)	22 (3.0%)
40대	6,952	290 (100.0%)	36 (12.4%)	1 (0.3%)	65 (22.4%)	88 (30.3%)	77 (26.6%)	8 (2.8%)	15 (5.2%)
50대 이상	138	254 (100.0%)	28 (11.0%)	2 (0.8%)	50 (19.7%)	83 (32.7%)	72 (28.3%)	2 (0.8%)	17 (6.7%)
미상	3,229	4,336 (100.0%)	944 (21.8%)	45 (1.0%)	921 (21.2%)	742 (17.1%)	935 (21.6%)	209 (4.8%)	540 (12.5%)
계	6,952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I 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 집계

I 피해자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중복하여 입은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연령대별 주요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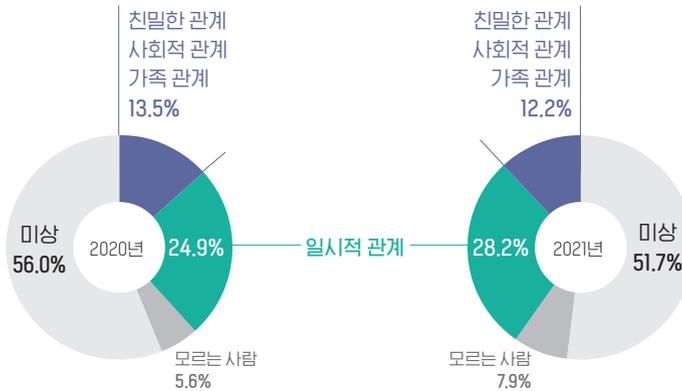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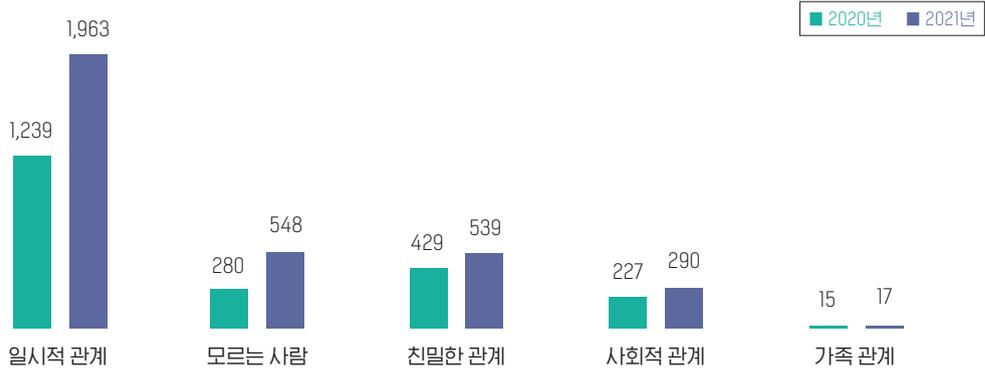
I 2021년 피해 유형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 미상을 제외하고 10대는 불법촬영, 20대는 유포불안, 30대는 유포, 40대·50대 이상은 유포협박이 주된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I 편집·합성과 사이버괴롭힘의 경우 저연령층에 속하는 10대, 20대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라.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명)

기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미상
2020년	4,973 [100.0%]	1,239 [24.9%]	280 [5.6%]	429 [8.6%]	227 [4.6%]	15 [0.3%]	2,783 [56.0%]
2021년	6,952 [100.0%]	1,963 [28.2%]	548 [7.9%]	539 [7.8%]	290 [4.2%]	17 [0.2%]	3,595 [51.7%]



2021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 미상을 제외하고 일시적 관계가 1,963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또한 2020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해자가 온라인상으로만 알았거나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인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해자 관계	분류 기준
일시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으로만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예) 공중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인 경우
친밀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 자매 등 친족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예) 유포 피해를 입었으나 유포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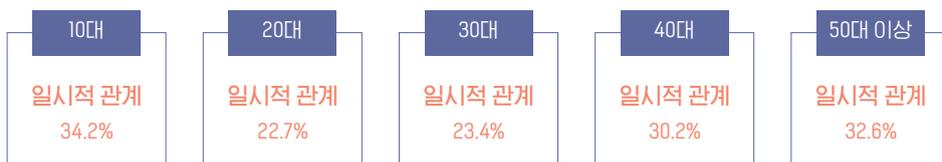
[연령대별 피해자-가해자 관계]

2021년 기준

(단위: 명)

연령	피해자 (명)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미상
10대	1,481	1,481 (100.0%)	507 (34.2%)	143 (9.7%)	43 (2.9%)	115 (7.8%)	2 (0.1%)	671 (45.3%)
20대	1,461	1,461 (100.0%)	331 (22.7%)	152 (10.4%)	205 (14.0%)	63 (4.3%)	7 (0.5%)	703 (48.1%)
30대	471	471 (100.0%)	110 (23.4%)	46 (9.8%)	70 (14.9%)	24 (5.1%)	1 (0.2%)	220 (46.7%)
40대	172	172 (100.0%)	52 (30.2%)	15 (8.7%)	23 (13.4%)	6 (3.5%)	2 (1.2%)	74 (43.0%)
50대 이상	138	138 (100.0%)	45 (32.6%)	3 (2.2%)	9 (6.5%)	5 (3.6%)	1 (0.7%)	75 (54.3%)
미상	3,229	3,229 (100.0%)	918 (28.4%)	189 (5.9%)	189 (5.9%)	77 (2.4%)	4 (0.1%)	1,852 (57.4%)
계	6,952	6,952 (100.0%)	1,963 (28.2%)	548 (7.9%)	539 (7.8%)	290 (4.2%)	17 (0.2%)	3,595 (51.7%)

연령대별 주요 피해자-가해자 관계



2021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관계 미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일시적 관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0대가 모르는 사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은 친밀한 관계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 채팅 상대 등 일시적 관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촬영물을 제작, 획득, 유포하는 가해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3.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현황

가. 피해 인지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미상*
2020년	1,808 [100.0%]	477 [26.4%]	817 [45.2%]	514 [28.4%]
2021년	2,789 [100.0%]	964 [34.6%]	560 [20.1%]	1,265 [45.4%]

*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직접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964명(34.6%)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 560명(20.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커뮤니티	P2P	웹하드	기타*
2020년	158,760 (100.0%)	38,332 (24.1%)	65,894 (41.5%)	25,383 (16.0%)	14,550 (9.2%)	5,152 (3.2%)	45 (0.03%)	9,404 (5.9%)
2021년	169,820 (100.0%)	59,113 (34.8%)	31,980 (18.8%)	30,372 (17.9%)	29,608 (17.4%)	5,181 (3.1%)	344 (0.2%)	13,222 (7.8%)

* 블로그, 아카이브,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1 2021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를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5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1,980건(18.8%), 검색엔진 30,372건(17.9%), 커뮤니티 29,608건(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커뮤니티 삭제지원 건수는 2020년 14,550건(9.2%)에서 2021년 29,608건(17.4%)으로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촬영물 키워드 등 유포,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의 유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 웹하드 삭제지원 건수는 2020년 45건(0.03%)에서 2021년 344건(0.2%)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으로 개발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 시스템(19.~)」을 통해 실시간 유포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피해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삭제지원한 촬영물 정보를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DNA DB」에 등록하여 재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촬영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포 플랫폼	설명
성인사이트	• 불법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소셜미디어	• 개인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검색엔진	• 인터넷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
커뮤니티	• 공통 주제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플랫폼 • 이미지 업로드 ·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팅 사이트
P2P	• 토렌트 등 P2P(Peer-to-peer Network)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웹하드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파일 공유 사이트
블로그	• 검색엔진 내 개인별 온라인 공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아카이브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를 영구 보존하는 사이트
스트리밍	•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클라우드	• 중앙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다.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항]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요청 [제3항 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3항 제2호]
2021년	169,820 (100.0%)	123,138 (72.5%)	13,245 (7.8%)	33,437 (19.7%)

2021년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수사기관의 지원요청에 따른 피해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의지에 따라 센터는 선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포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라. 피해촬영물 유형

(단위: 건)

기간	합계	동영상	사진
2020년	48,958 (100.0%)	5,234 (10.7%)	43,724 (89.3%)
2021년	41,830 (100.0%)	6,524 (15.6%)	35,306 (84.4%)



피해자가 센터에 접수한 촬영물과 삭제지원을 하며 추가적으로 발견한 촬영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광고나 워터마크 또는 다른 촬영물과 합성하는 등 편집·가공된 촬영물을 모두 확보하여 유포현황 파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 41,830건 중 사진이 35,306건(84.4%), 동영상이 6,524건(15.6%)으로 동영상보다 사진이 더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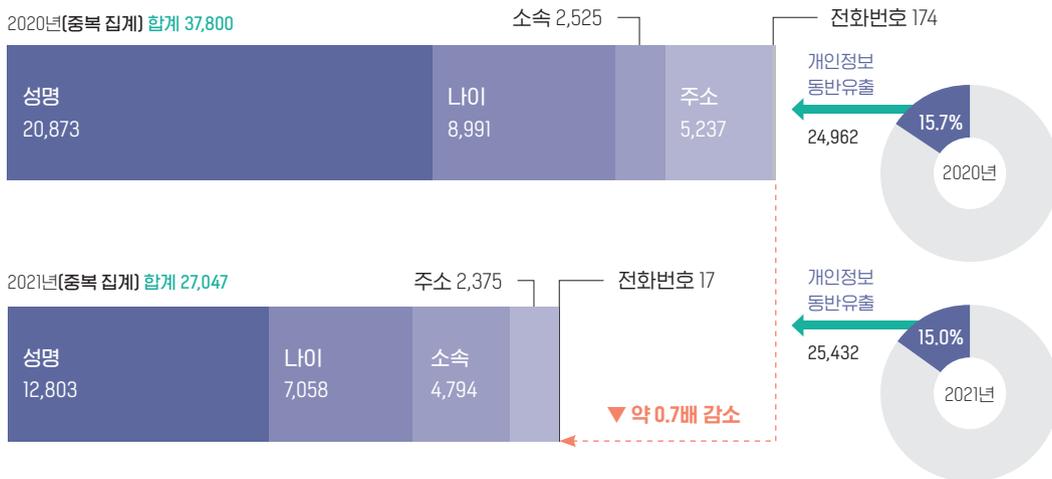
마. 피해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단위: 건)

기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개인정보 동반유출	개인정보 유형					
			합계	성명	나이	소속	주소	전화번호
2020년	158,760 [100.0%]	24,962 [15.7%]	37,800 [100.0%]	20,873 [55.2%]	8,991 [23.8%]	2,525 [6.7%]	5,237 [13.9%]	174 [0.5%]
2021년	169,820 [100.0%]	25,432 [15.0%]	27,047 [100.0%]	12,803 [47.3%]	7,058 [26.1%]	4,794 [17.7%]	2,375 [8.8%]	17 [0.1%]

- |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확인되어 삭제지원한 실적임.
- | 게시물별 개인정보 유출 내역 중복 집계

피해촬영물 동반 유출 개인정보 유형



|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1년 전체 삭제지원 169,820건 중 15.0%인 25,4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때 삭제지원한 개인정보는 성명이 1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주소 2,375건(8.8%), 전화번호 17건(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된 게시물 비율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중복집계한 결과는 27,047건으로 약 0.7배 감소하였습니다.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부록

1. 피해자 지원 사례

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지원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또래를 사칭한 가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A씨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학교,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성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A씨의 답변내용을 캡처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A씨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대화내용이 유출될까 두려워 다수의 성적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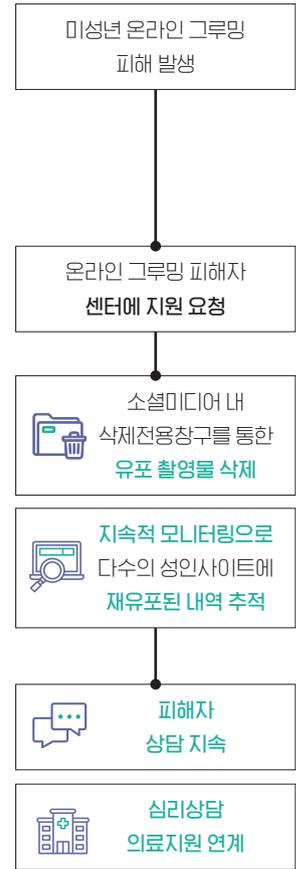
몇 개월 후 A씨는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개인정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센터에 피해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는 해당 소셜미디어 내 삭제 전용창구를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의 성인사이트에 재유포된 내역을 추적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친한 또래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돌변하였다는 충격,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스스로 성적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자책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센터의 상담원은 온라인 그루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가해자에 의한 범죄일 뿐 A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상담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센터는 지역 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하여 A씨가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피해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상담원의 변함 없는 지지에 용기를 얻은 A씨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경찰 신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유포 피해에 대한 채증자료와 지원사실확인서를 제공하였고, 지역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재유포 모니터링과 가해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A씨는 '자신을 조력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이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행위

관련법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자신을 조력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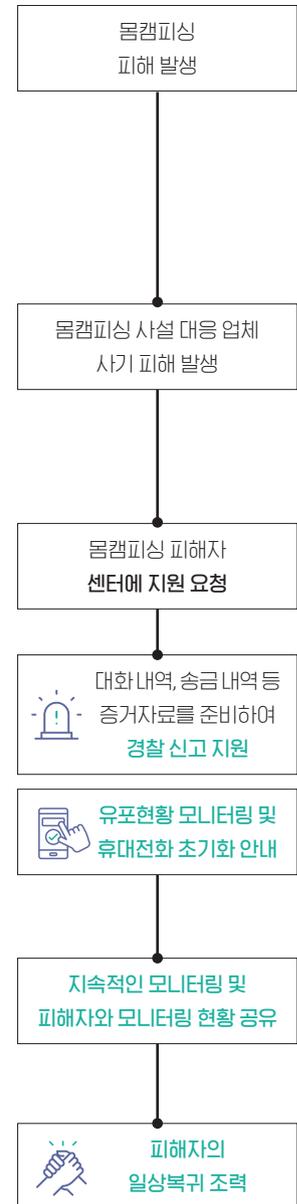
나. 몸캠피싱 피해자 지원

남성 피해자 B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20대 여성을 사칭한 가해자와 성적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B씨에게 채팅 어플이 아닌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B씨에게 성적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여러 개의 첨부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다수의 첨부파일에 섞여 있던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B씨에게 각자 탈의한 채로 영상 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B씨는 상호 간에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B씨의 지인 연락처와 영상 통화 녹화본을 보내며, 3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B씨가 금전을 송금한 이후에도 협박은 그치지 않았고 금전 요구는 500만원, 700만원으로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B씨는 사설 몸캠피싱 대응업체를 찾았으나 업체는 “특수기술로 가해자의 서버를 해킹하여 유출된 개인정보와 성적 촬영물을 100% 삭제해주겠다”라고 속여 월 300만원의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금전적 피해가 막심했던 B씨는 **센터에 피해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는 B씨에게 **가해자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통화 녹화본 파일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유포현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찰 신고와 모니터링 접수를 위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이후에는 **가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가족, 지인에게 피싱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차후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시침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센터는 **온라인 플랫폼 내 유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모니터링 현황을 B씨와 공유하여 B씨가 유포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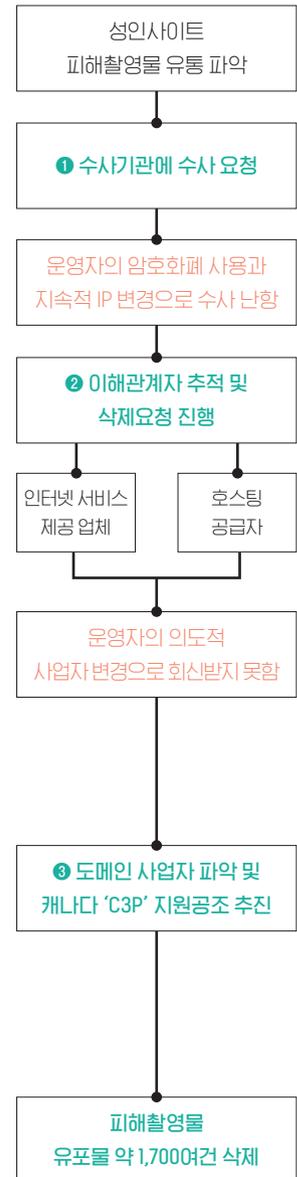
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공조

센터는 2018년경부터 성인사이트 C를 통해 다수의 피해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를 위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운영자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IP 주소를 지속 변경하는 등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 갔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는 동안 성인사이트 C를 통해 수만 건의 피해촬영물이 유통되었습니다.

이에 센터는 삭제지원의 계층적 접근이라는 방식을 적용하여 삭제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추적하였습니다. 먼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호스팅 공급자를 통한 삭제요청을 진행하였으나,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 사업자가 지속 변경되어 마찬가지로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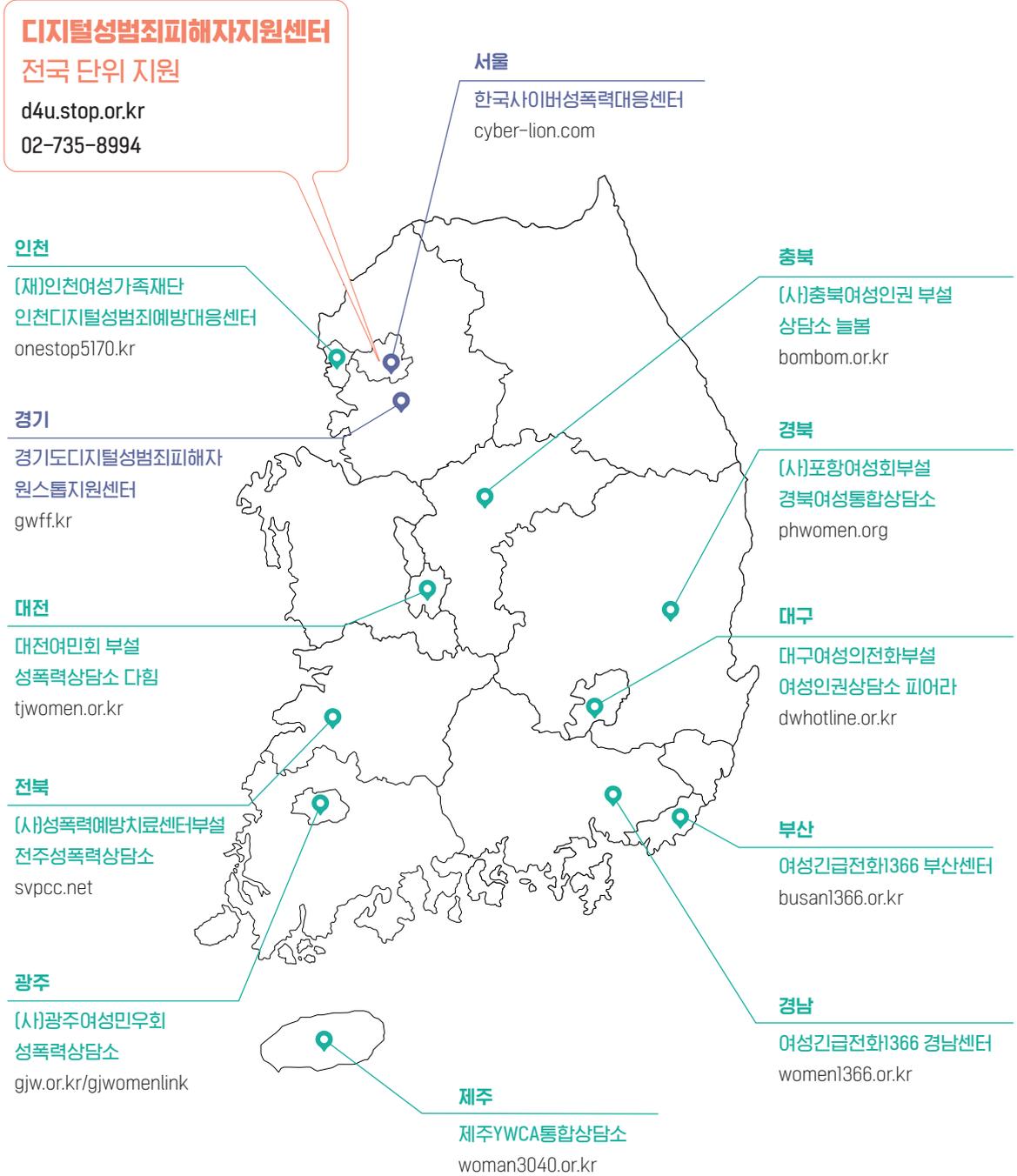
센터는 새로운 삭제요청 경로를 지속 탐색하던 중 성인사이트 C의 도메인 등록업체가 특정 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즉시 해당 사업체의 본사가 있는 캐나다의 아동보호센터(이하 C3P,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지원공조를 요청하였습니다. C3P는 캐나다 연방법에 따른 온라인 아동 성착취 신고를 위한 공식 핫라인으로, 해당 기관과 공조할 경우 도메인 등록업체에 삭제요청을 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센터는 수차례에 걸친 화상회의와 서면교류를 통해 C3P와 지원공조를 추진하였고, 양 기관의 노력으로 해당 도메인 등록업체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성인사이트 C에 게시된 약 1,700여 건의 피해촬영물 유포물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관부처
<p>피해촬영물 삭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d4u.stop.or.kr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합니다.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 kocsc.or.kr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p>여성가족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p>
<p>수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p>홈페이지 접속(police.go.kr)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p> <p>신고접수 시, 피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p>안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촬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배석)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 사건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당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술복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도 안내해드립니다. </div>	<p>경찰청</p>
<p>심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해드립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 전문시설 연계 - 임시숙소 제공 - 순찰 강화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p>경찰청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p>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관부처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촬영물에 대한 증거 확보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법무부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 1366,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호·지원 기관 연락처]

기관	전화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kocsc.or.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women1366.kr *중앙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02-3476-6515	legaid.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crisis-center.or.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kcva.or.kr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4. 통계자료



일러두기

• 기준일

- 2018년: 2018.4.30.~2018.12.31. (8개월)
- 2019년: 2019.1.1.~2019.12.31. (12개월)
- 2020년: 2020.1.1.~2020.12.31. (12개월)
- 2021년: 2021.1.1.~2021.12.31. (12개월)

•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지원한 피해자 명수
- 2020년도에 최초로 지원이 시작된 피해자 중 2021년에도 지원이 지속된 경우 2021년 피해자 인원내 포함함.

• 지원 건수

- 해당연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남.

• 항목별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아래 각주로 제시함.

• 통계 내용은 2021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년 대비 양상이 크게 변화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함.

(1) 전체 현황

가. 운영 실적

(단위: 명, 건)

기간	피해자 수 (명)	지원 건수 (건)				
		합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	1,315	33,921 (100.0%)	4,787 (14.1%)	28,879 (85.1%)	203 (0.6%)	52 (0.2%)
2019년	2,087	101,378 (100.0%)	5,735 (5.7%)	95,083 (93.8%)	500 (0.5%)	60 (0.1%)
2020년	4,973	170,697 (100.0%)	11,452 (6.7%)	158,760 (93.0%)	445 (0.3%)	40 (0.02%)
2021년	6,952	188,083 (100.0%)	17,456 (9.3%)	169,820 (90.3%)	708 (0.4%)	99 (0.1%)

나. 지원유형별 현황

(단위: 명)

기간	합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상담 및 지원연계*
		소계	삭제지원 인입	삭제지원 전환		
2018년	1,315 (100.0%)	241 (18.3%)	241 (18.3%)	-	-	1,074 (81.7%)
2019년	2,087 (100.0%)	459 (22.0%)	454 (21.8%)	5 (0.2%)	66 (3.2%)	1,562 (74.8%)
2020년	4,973 (100.0%)	841 (16.9%)	618 (12.4%)	223 (4.5%)	967 (19.4%)	3,165 (63.6%)
2021년	6,952 (100.0%)	1,028 (14.8%)	683 (9.8%)	345 (5.0%)	1,761 (25.3%)	4,163 (59.9%)

*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없이 상담 또는 수사·법률·의료지원연계를 단독으로 받은 경우

- | 삭제지원 인입 : 초기 인입부터 유포가 확인된 피해촬영물 대상 삭제지원 및 재유포 모니터링
- | 삭제지원 전환 :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가 확인된 피해촬영물 대상 삭제지원 및 재유포 모니터링
-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촬영물 대상 유포 여부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2] 상담 현황

가. 최초 상담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전화상담	온라인 게시판상담	기타*
2018년	1,315 (100.0%)	868 (66.0%)	437 (33.2%)	10 (0.8%)
2019년	2,087 (100.0%)	1,400 (67.1%)	675 (32.3%)	12 (0.6%)
2020년	4,973 (100.0%)	3,555 (71.5%)	1,405 (28.3%)	13 (0.3%)
2021년	6,952 (100.0%)	5,467 (78.6%)	1,441 (20.7%)	44 (0.6%)

* 전화, 게시판 상담을 제외한 방문, 문자, 이메일 등으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나.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기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18년	여성	1,106 [84.1%]	95 [7.2%]	218 [16.6%]	98 [7.5%]	18 [1.4%]	20 [1.5%]	657 [50.0%]
	남성	209 [15.9%]	16 [1.2%]	33 [2.5%]	11 [0.8%]	16 [1.2%]	5 [0.4%]	128 [9.7%]
	계	1,315 [100.0%]	111 [8.4%]	251 [19.1%]	109 [8.3%]	34 [2.6%]	25 [1.9%]	785 [59.7%]
2019년	여성	1,832 [87.8%]	288 [13.8%]	463 [22.2%]	148 [7.1%]	33 [1.6%]	22 [1.1%]	878 [42.1%]
	남성	255 [12.2%]	33 [1.6%]	41 [2.0%]	19 [0.9%]	17 [0.8%]	10 [0.5%]	135 [6.5%]
	계	2,087 [100.0%]	321 [15.4%]	504 [24.1%]	167 [8.0%]	50 [2.4%]	32 [1.5%]	1,013 [48.5%]
2020년	여성	4,047 [81.4%]	1,007 [20.2%]	863 [17.4%]	267 [5.4%]	77 [1.5%]	36 [0.7%]	1,797 [36.1%]
	남성	926 [18.6%]	197 [4.0%]	189 [3.8%]	65 [1.3%]	57 [1.1%]	51 [1.0%]	367 [7.4%]
	계	4,973 [100.0%]	1,204 [24.2%]	1,052 [21.2%]	332 [6.7%]	134 [2.7%]	87 [1.7%]	2,164 [43.5%]
2021년	여성	5,109 [73.5%]	1,194 [17.2%]	1,090 [15.7%]	367 [5.3%]	91 [1.3%]	42 [0.6%]	2,325 [33.4%]
	남성	1,843 [26.5%]	287 [4.1%]	371 [5.3%]	104 [1.5%]	81 [1.2%]	96 [1.4%]	904 [13.0%]
	계	6,952 [100.0%]	1,481 [21.3%]	1,461 [21.0%]	471 [6.8%]	172 [2.5%]	138 [2.0%]	3,229 [46.4%]

| 피해신고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다. 피해 유형

(단위: 건)

기간	합계	불법촬영	편집·합성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8년	2,289 (100.0%)	656 (28.7%)	69 (3.0%)	758 (33.1%)	208 (9.1%)	216 (9.4%)	108 (4.7%)	274 (12.0%)
2019년	4,114 (100.0%)	1,043 (25.4%)	144 (3.5%)	1,213 (29.5%)	354 (8.6%)	557 (13.5%)	273 (6.6%)	530 (12.9%)
2020년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년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Ⅰ 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 집계

Ⅱ 피해자 A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 피해를 중복하여 입은 경우 각 1건씩 총 2건으로 집계함.

라.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명)

기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미상
2018년	1,315 (100.0%)	198 (15.1%)	169 (12.9%)	309 (23.5%)	136 (10.3%)	5 (0.4%)	498 (37.9%)
2019년	2,087 (100.0%)	331 (15.9%)	373 (17.9%)	500 (24.0%)	227 (10.9%)	5 (0.2%)	651 (31.2%)
2020년	4,973 (100.0%)	1,239 (24.9%)	280 (5.6%)	429 (8.6%)	227 (4.6%)	15 (0.3%)	2,783 (56.0%)
2021년	6,952 (100.0%)	1,963 (28.2%)	548 (7.9%)	539 (7.8%)	290 (4.2%)	17 (0.2%)	3,595 (51.7%)

(3)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현황

가. 피해 인지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미상*
2018년	241 (100.0%)	74 (30.7%)	103 (42.7%)	64 (26.6%)
2019년	525 (100.0%)	200 (38.1%)	187 (35.6%)	138 (26.3%)
2020년	1,808 (100.0%)	477 (26.4%)	817 (45.2%)	514 (28.4%)
2021년	2,789 (100.0%)	964 (34.6%)	560 (20.1%)	1,265 (45.4%)

*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커뮤니티	P2P	웹하드	기타*
2018년	28,879 (100.0%)	8,239 (28.5%)	10,312 (35.7%)	6,705 (23.2%)	848 (2.9%)	2,158 (7.5%)	317 (1.1%)	300 (1.0%)
2019년	95,083 (100.0%)	26,170 (27.5%)	4,337 (4.6%)	31,369 (33.0%)	2,042 (2.1%)	29,359 (30.9%)	190 (0.2%)	1,616 (1.7%)
2020년	158,760 (100.0%)	38,332 (24.1%)	65,894 (41.5%)	25,383 (16.0%)	14,550 (9.2%)	5,152 (3.2%)	45 (0.03%)	9,404 (5.9%)
2021년	169,820 (100.0%)	59,113 (34.8%)	31,980 (18.8%)	30,372 (17.9%)	29,608 (17.4%)	5,181 (3.1%)	344 (0.2%)	13,222 (7.8%)

* 블로그, 아카이브,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다.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건수

(단위: 건)

기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 제2항)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요청 (제3항 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3항 제2호)
2021년	169,820 (100.0%)	123,138 (72.5%)	13,245 (7.8%)	33,437 (19.7%)

라. 피해촬영물 유형

(단위: 건)

기간	합계	동영상	사진
2018년	3,849 (100.0%)	808 (21.0%)	3,041 (79.0%)
2019년	13,004 (100.0%)	1,699 (13.1%)	11,305 (86.9%)
2020년	48,958 (100.0%)	5,234 (10.7%)	43,724 (89.3%)
2021년	41,830 (100.0%)	6,524 (15.6%)	35,306 (84.4%)

마. 피해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단위: 건)

기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개인정보 동반유출	개인정보 유형					
			합계	성명	나이	소속	주소	전화번호
2018년	28,879 (100.0%)	5,935 (20.6%)	6,700 (100.0%)	4,793 (71.5%)	546 (8.1%)	533 (8.0%)	622 (9.3%)	206 (3.1%)
2019년	95,083 (100.0%)	17,427 (18.3%)	22,437 (100.0%)	16,595 (74.0%)	2,203 (9.8%)	2,773 (12.4%)	820 (3.7%)	46 (0.2%)
2020년	158,760 (100.0%)	24,962 (15.7%)	37,800 (100.0%)	20,873 (55.2%)	8,991 (23.8%)	2,525 (6.7%)	5,237 (13.9%)	174 (0.5%)
2021년	169,820 (100.0%)	25,432 (15.0%)	27,047 (100.0%)	12,803 (47.3%)	7,058 (26.1%)	4,794 (17.7%)	2,375 (8.8%)	17 (0.1%)

┆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확인되어 삭제지원한 실적임

┆ 게시물별 개인정보 유출 내역 중복 집계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행인	박봉정숙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T. 02-735-1050 F. 02-6363-8493
홈페이지	stop.or.kr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2022-003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허락없이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